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형이 좋아!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학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u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네펜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새누리는 심판의 대상일 뿐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옷을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답입니까? 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킨 핵심 원흉입니다.



촛불혁명 시민에게 몸 낮추고 운명을 위탁해야 할 자들이 이제 와서 12월 2일은 안 된다는 등, 퇴진일정과 관련해 친박 지도부와 야당은 협상하라는 등,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부분은 빼야 한다는 등, 분수를 모르는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 정치인의 DNA입니다. 반성하는 척 하다가도 언젠가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하면 표변합니다

새누리의 또 다른 축, 친박은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의 기만적인 대국민 입장 발표 이후 이미 폐족이 돼 있어 마땅할 이 자들은, 박근혜가 신의 한수를 뒀다는 등, 촛불의 배후가 있다는 등, 서슴없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탄핵을 포기하면 지도부 사퇴해준다면 선심 쓴다는 듯 허장성세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고자 열리는 국정조사 현장을 가보지요. 친박 비박 누구라 할 것 없이 진실규명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긴 가해자가 진실규명에 나서다 벌어진 파행은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충분히 봤고 속 뒤집혔던 터입니다. 새누리당은 4.19 때 이송만이 자유당과 함께 몰락했듯 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합니다. 이견 야당이 옳고 바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도 염치를 모르고 위기 상황이면 어김없이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새누리당 집단은 한국 정치의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암은 도려내야지요.

친박이 짝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주자.” 그래, 용서해줄 자들입니까?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1일(목) 1부 |朴 담화에 75% "그만둬야" 대세 확고

[오프닝] 고개 드는 새누리, 이전 국면 전환됐다고 믿는 모양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 “즉각 퇴진”으로 구호 바꾼 촛불... 사상최대 주말집회 예고
- 잇단 ‘결백 담화’에 분노·우울... ‘근해증’ 앓는 국민들
- 사실 없다는 대통령, 공소장엔 ‘최순실 비리’ 6차례 개입
- 비박 26명 “여야 협상 안 되면 9일 탄핵처리 할 수밖에”
- 박근혜 측근에게 “퇴진 시점 내년 4월 말이 적당”
- 안중근 저서·안창호 직책 틀려... 이들 만에 오류 300여건 발견
-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 지지율 4%' 여론조사 관련 퀴즈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유엔,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 통과...그런데 중국 협조 없이는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총수님 국회 청문회 가신다” 호들갑 떠는 재벌들의 백태
- 저승사자 박영수 특검, 재벌까지 허물 수 있을까?
- [공화국 논평] "박근혜 수갑 채워야" 이재명에 대한 중대 조치

혁명 지도자, 박근혜

東亞日報 오는 토요일, 사상최대 주말집회 예고

대통령 박근혜가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에 오는 토요일 열리는 6차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촛불집회를 이끄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사상 최대의 국민이 집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주최 측은 6차 촛불집회의 구호를 ‘박근혜 즉각 퇴진’으로 바꿨다. 동아일보가 크게 다뤘다.

한국일보 많은 시민 참여한 ‘시민불복종의 날’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하루를 ‘시민불복종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즉각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반 시민들도 일일 불복종 운동에 함께 했다.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들도 가게 문을 닫고 불복종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하거나 1인 휴업을 하며 불복종 의지를 대신했다. 사정상 직장을 비우기 어려운 시민들은 사무실 밖에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소등 시위로 동참했다.

명불허전 새누리당

CBS ‘4%’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한편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1주일 전 조사보다 찬성 응답은 4.2%p 내렸지만 그래도 75.3%다. 4% 내린 것은 박근혜가 퇴진 의사를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로서는 4% 변화 때문에 탄핵 찬성에서 탄핵 반대 입장으로 바꾸는 게 과연 합리적일지 열심히 주판알을 굴릴 것이다.

중앙일보 “촛불집회가 자발적이라니 가능한가”

대통령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이들 연속 의원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친박계 김종태 의원은 “오후 8시에 일시적으로 촛불을 끄는 일도 있었다. 점조직이 활동하지 않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온 집회라면 가능했겠다. 그만한 흠도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발언했다. 또한 친박계 의원들은 “오보를 터뜨리는 언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전하는 중앙일보의 기사제목은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친박들”이다.

박근혜의 셀프 왕따

국민일보 ‘근혜증’ 앓는 국민들, 분노와 우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뉴스를 지켜보다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이른바 ‘근혜증’이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박근혜는 1차부터 3차 담화 내내 자신의 결백을 되풀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겠다던 입장을 뒤집는 등 국민을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유발한 분노와 우울증이 점차 무기력과 자조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 ‘사심’의 뜻도 모르는 우매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심 없음’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제기된 혐의를 빠져 나가려는 의도가 노골화된 담화문으로 곳곳에서 법률가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고들의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는 최순실이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여섯 차례나 개입,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또한 범죄 흐름도 최순실이 부타하면 박근혜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관됐다. 사심 없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겨레 새누리 원로들 “차, 간교한 꼼수 써”

대통령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을 들쭉시려는 정략적 의도다. 이에 “박근혜가 내년 4월까지 물러나야 한다”며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한 원로들도 박근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원로 제안’을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박근혜가 제안을 받는 척하면서 결국 일주일 시간을 벌었다”고 꼬집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아주 지능적이고 간교하고 교묘한 꼼수를 대통령이 써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다 새누리당 출신들이다.

잔머리 굴리는 새누리

東亞日報 비박 26명 “협상 안 되면 9일 탄핵”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 26명은 대통령 박근혜의 조기 퇴진에 대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9일에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동아일보가 비상시국위원회 43명중 31명에게 물어봤는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비박계 의원들은 14명에 그쳤다. 다 반대로 돌아섰느냐, 아니다. 2명만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 판단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나머지 15명이다.

국민일보 차 “퇴진 시점은 내년 4월이 적당”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진 시점은 내년 4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쫓겨나는 사람의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일보 서청원 “내년 2월에 개헌 합의될 것”

친박계 만형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개헌 합의가 내년 2개월이면 승부가 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한두 달 연장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4월보다는 2월 퇴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헌이 반드시 되어 퇴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고리로 대통령 박근혜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 그동안 국민들 기만하는 게 업이다시피 했던 이들의 말 신뢰가 가나? 트릭이 숨어있다는 생각 안 드나?

청와대의 업무 성과

국민일보 “靑, 마약성 의약품 836정 소비”

청와대가 2013년 향정신성의약품을 1110정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836정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의약품은 자낙스, 스틸녹스 등이며 이 약품들은 중독성이 강하고 장기 복용 시 환각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변화, 자살 충동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 성분이라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힌 말이다.

경향신문 ‘댓글부대’ 만든 교수, 안봉근과 연락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흥기 전 카이스트 교수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 아래 ‘댓글부대’ 구축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안봉근 전 비서관과 김흥기 전 교수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화보업체 사장 김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흥기 전 교수가 안봉근 전 비서관을 잘 안다고 자랑하며 사업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통화 내용과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위기의 한국경제

朝鮮日報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조756억 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기업 총수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해외 무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은 투자는 안 하고 권력층에 뒷돈을 주나"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수출 감소로 이어질까봐 걱정인데 기업들이 뇌물죄로 기소될 경우 미국은 '해외 부패방지법'을 적용한다. 공공입찰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 기사 속에 무엇이 녹아있나. '기업은 봐주자' 이거 아닌가.

東亞日報 한국경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제조업 가동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백화점 및 외식업종의 매출 역시 급감했다. 외환보유액 등 경제 기초는 19년 전보다 튼튼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이란 지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동아일보 보도. 제대로 된 처방이 뭔가. 박근혜 하야다.

東亞日報 현기환, 수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차례 골프와 유흥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불법으로 수수한 금품은 역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어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수의 교육 철학

국민일보 역사 왜곡에 이어 ‘사대 교과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과 갈등 소지가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동북공정 과정에서 티베트를 무력 점령한 일이나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을 강경 탄압한 일들은 모두 교과서에서 빠져있었다.

또한 이어도와 간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리한 국정화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담지 못한 '사대 교과서'가 나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또한 임시정부 출범 때 노동국 총관이었던 도산 안창호의 직책을 내무총장으로 잘못 표기했다. 한국일보 보도, 이런 종이 쓰레기를 배우라고 발행한다는 것이다.

朝鮮日報는 국정 교과서의 마지막 지킴이

조선일보가 새누리당도 손을 댄 국정 역사교과서 지키기에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회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 것을 소개한 것이다. 현장본이 공개되기 전부터 국정화에 찬성해왔던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회는 전국 1653개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900개 법인 이사장들의 모임이다. 사주나 친인척들이 각종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사학재단 이사장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한국일보 국정 역사교과서, 오류 300여건 발견

역사 국정교과서가 공개 이틀 만에 300건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며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고등교과 '한국사'는 안중근 의사의 미완성 논저인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칼럼

S 부산일보 “청와대의 국어실력”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부산일보 이진원 교열부장의 “청와대의 국어실력”이다.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문장은, 명백하게 잘못이다. '오보·과담 바로잡기'의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꼭지 첫 문장인데, 주술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이다. '지시'는 내려야 하겠지만, '보고'는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 한데, 당일 30여 차례보고도 내리고 지시도 내렸다니... 혹시 그 보고, 최순실에게 한 것인가? ”

여기까지다. 혹시 거짓말로 다급하게 해명하다보니 문장도 엉망이 된 것은 아닐까? 네 진실만한 권위 진실만한 위기 타개책은 없다.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の日

12.3 토

광화문 광장
4시 청와대 포위
6시 본행사
7시 행진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텔레그램/인스타그램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